

203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(안)

_ 요약본 _

2011. 4.



목 차

1 • 계획의 개요 4

- |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
- | 계획의 범위
- |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배경
- | 2030 도시기본계획의 특징

2 • 미래상과 핵심이슈 5

- | 서울의 여건변화
- | 미래상 및 핵심이슈
- |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계획지표

3 • 공간구조 구상과 토지이용계획 6

- | 서울의 공간구조 현황과 과제
- | 공간구조 개편방향과 실현전략
- | 중심지 체계
- | 토지이용계획

4 • 핵심이슈별 계획 10

- |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
- |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
- | 함께 사는 행복 서울
- | 친환경 녹색 서울

5 • 권역별 구상 12

- | 도심권
- | 동북권
- | 서북권
- | 서남권
- | 동남권

6 • 계획의 실현화 방안 15

- | 정책지표 설정 및 연차별 모니터링
- | 시민참여 활성화
- | 중간단위 공간계획의 수립
- |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간 정합성 강화

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(안)의 개요 |

□ 계획의 성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근거한 최상위 법정계획
-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
- 토지의 이용·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

□ 계획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2011년 ~ 2030년
- 공간적 범위 : 서울시 전역을 대상(605.96km²)

□ 계획의 특징

- 기존의 「부문별 종합계획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「핵심이슈별 전략계획」으로 전환
-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심지체계를 핵과 거점으로 개편
- 5대 권역별로 특성화된 지역상과 발전전략 제시하고 핵심이슈를 공간적으로 구체화
-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

□ 주요 내용

- “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”을 미래상으로 4대 핵심이슈 선정
 -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역사문화도시의 매력 극대화, 특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,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
- 1도심·5부도심·11지역중심 → 3핵·3부핵·13거점으로 공간구조 개편
 - 3핵(도심, 영등포, 강남)의 국제업무기능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3부핵은 3핵을 기능적으로 보완하고 대생활권을 담당하는 상업 및 업무중심지 육성
 - 광역화에 대응한 광역연계거점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거점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새롭게 설정
- 서울의 역사문화 자원의 재인식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 강화
 -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수립
 - 매력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
- 권역계획과 서민주거정책으로 공간의 불균형과 주거의 불안정 해소
 - 권역별 특성화 계획과 낙후지역의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
 -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공급, 주거비 지원 확대 등 수요대응형 주거정책으로 서민주거 안정
 -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공공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 생활권 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
-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
 - 철도 중심의 공간구조, 역세권 고밀복합 등을 통한 에너지 절약형 도시관리체계 구축
 -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,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2011. 6. : 시의회 의견청취
- 2011. 7. 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1 계획의 개요

■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

- 서울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20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
-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
 - 타 법률에 의한 환경·교통·주택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

■ 계획의 범위

- 시간적 범위 : 기준년도 2011년, 목표연도 2030년
- 공간적 범위 : 서울시 전역을 대상(605.96km²)
- 내용적 범위
 -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울의 미래상과 명확한 계획목표 설정
 -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이슈 중심으로 계획
 - 서울시 전체 공간발전전략과 토지이용계획의 방향 제시
 - 지역 특성이 반영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역별 구상 수립
 -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지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

■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배경

- 법률에 따른 재정비 시기 도래
 - 국토계획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
-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
 -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중요성 부각, 대도시권 차원의 경쟁 심화
 - 고령사회 진입,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화 등

■ 2030 도시기본계획의 특징

- 전략계획 및 공간계획 성격 강화
 - 목표지향적인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
 - 미래상을 반영한 공간구조, 토지이용, 권역별구상 등 공간계획의 비중 강화
- 계획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

2 미래상과 핵심이슈

■ 서울의 여건변화

- **인구구조 변화**
 -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복지시설 및 소형주택 수요의 증가 예상
- **경제성장의 둔화와 양극화**
 - 서울의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위기 등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공간의 불균형 심화
- **세계 초광역 대도시권 경쟁 심화**
 -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은 세계 여러 도시와 비교할 때 취약한 수준
- **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 본격화**
 -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목표(90년 대비 40% 감축) 달성을 위한 도시공간전략 마련 필요
- **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**
 - 시가지의 집단적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방식 마련 필요

■ **설문조사 | 앞으로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은?** (서울시민 1,500명)

- 서울의 미래상 : 친환경도시 > 경쟁력 도시 > 역사문화 도시 순으로 강조
- 시민이 생각하는 장래 서울의 발전방향 : 삶의 질 개선과 내실 있는 성장
 - 시민의 70.6%가 “내실 있는 성장”을 선호

■ 미래상 및 핵심이슈

“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”

계획의 기조 ▶ **글로벌 경쟁력 강화, 시민 삶의 질 향상**

- 핵심이슈 ▶
-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
 - 매력 있는 역사문화 서울
 - 함께 사는 행복 서울
 - 친환경 녹색 서울

■ 미래상 실현을 위한 계획지표

- 경제 : '30년까지 1인당 GRDP 5만달러, 고용률 70%를 목표로 함
- 주택 : '30년까지 주택보급률 102.8%, 공공임대주택 비율 10%를 목표로 함
- 공원 : '30년까지 1인당 공원면적 19.11㎡, 공원서비스 비율 100%를 목표로 함

3 공간구조 구상 및 토지이용계획

■ 서울의 공간구조 현황과 과제

- **세계 대도시권 간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 대응 필요**
 - 세계 40대 주요 메가시티리전이 글로벌 경제 활동의 66%를 차지
 - 런던, 뉴욕, 동경권 등 세계 대도시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필요
- **서울의 생활권이 광역대도시권으로 확장됨에 따른 공간구조 재설정 필요**
 - 일산-파주, 성남, 광명-안산, 의정부, 하남축 등 시가화 진전으로 장거리 통근 증가
 - 서울완결형 공간구조에서 광역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필요
- **현실을 반영한 중심지 개편 필요**
 - 서울의 업무 연상면적과 종사자 수가 도심과 영동 및 영등포 부도심에 집중
 -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공간구조 구축을 위하여 영등포 및 영동 부도심의 기능을 도심급으로 격상시킬 필요
- **신규 개발가능지의 고갈로 공간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**
 - 기성시가지의 밀도관리와 저이용-미이용 토지에 대한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필요
 - 간선도로 중심의 선적 공간구조에서 역세권 중심의 면적 공간구조로 변환
 - 역세권의 기능과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에 따라 입체복합개발 유도

■ 공간구조의 개편방향과 실현전략

○ 개편의 필요성

-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의 공간구조를 대도시권 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기존 중심지에 대한 시각의 전환 필요
- 서울중심의 위계적·완결적 구조에서 대도시권 차원의 기능적·개방적 구조로 전환

○ 공간구조 개편방향

‘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’

○ 실현전략

-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중심기능 특화 육성

- 도심, 영등포, 강남을 3핵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
- 용산, 청량리·왕십리, 상암·수색은 3핵을 지원하는 부핵으로 육성
- 고용기반과 및 수도권 배후도시와 연계성을 강화한 광역연계거점 육성
- 대생활권 지원하는 상업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지역거점 육성

- 지역별 특화 육성을 위한 발전축의 다변화

- 경인축: 서울~인천(송도)을 연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기능 확충
- 동북축: 산학 연계를 통한 수도권 동북부의 고용기반 강화
- 서북축: 디지털 창조문화 클러스터 구축
- 서남축: R&D와 생산을 연계하는 첨단산업벨트 구축
- 동남축: 글로벌 지시서비스 기능 확충

-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강화

- 역세권의 입지 및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유형별 공간전략 구축
- 역세권 중심의 생활편익기능 확충으로 도보생활권 형성

- 서울 대도시권의 통합적 철도인프라 확충

- 3핵과 수도권 경제중심지간 직결체계 구축
- 공항·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와의 접근성 향상
- 광역연계거점과 수도권 배후지간 철도교통 연계성 강화

중심지 체계

“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”

중심지체계

- 3핵-3부핵-13거점
- 3핵 : 도심, 영등포, 강남
- 3부핵 : 용산, 청량리·왕십리, 상암·수색
- 13거점 : 8광역연계거점 + 5지역거점

특징

-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시민 삶의 질 향상
-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
 - 지역특성 강화 / 발전축 다변화

2020 공간구조와 2030 공간구조 비교 |

구분	2020 공간구조	2030 공간구조(안)
중심지체계	도심-부도심-지역중심-지구중심 ※전략육성중심지 / 전략육성지	핵-부핵-거점
	1도심-5부도심-11지역중심-53지구중심	3핵-3부핵-13거점-50지구중심
고차중심지	1도심 : 도심 5부도심 : 용산, 청량리·왕십리, 상암·수색, 영등포, 영동	3핵 : 도심, 영등포, 강남 3부핵 : 용산, 청량리·왕십리, 상암·수색
저차중심지	11지역중심 · 망우, 미아, 상계, 연신내, 신촌, 공덕, 목동, 대림, 사당·남현, 잠실, 천호·길동	13거점 · 8광역연계거점 : 망우, 창동·상계, 연신내·불광, 마곡, 대림·가리봉, 사당·남현, 문정·장지, 천호·길동 · 5지역거점 : 미아, 신촌, 공덕, 목동, 잠실
	53 지구중심	50 지구중심

■ 토지이용계획

○ 기본방향

- 1) 토지자원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개발지를 우선적으로 활용
- 2) 토지의 입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가지 관리
- 3) 기반시설과 중심지 여건을 고려하여 입체복합개발 지향

○ 토지이용의 관리전략

- 중심지 관리전략

-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중심기능 집적
- 중심지의 특성과 기반시설을 고려한 밀도계획과 육성전략 수립

- 주거지 관리전략

- 노후주거지는 중심지를 포함한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 관리
- 서민주택을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주택은 역세권 등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급
- 서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주택을 유지·보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

- 기존 산업 밀집지역 관리전략

-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관리 강화
-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도록 공공지원 강화

- 개발제한구역 관리전략

- 개발제한구역은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호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전
-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
-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기준을 적용하여 조정

- 대규모 개발가능지 관리전략

- 개발가능지는 장래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관리
- 저·미이용되는 개발가능지는 고용창출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
- 노후화된 지상철도구간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입체복합화 추진

- 수변공간의 토지이용전략

- 수변은 자연과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여가공간으로 활용
- 수변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친환경 워터프론트 도시 조성

4 핵심이슈별 계획

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

- 국제업무기능의 집적과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,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기반을 확충하며,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 서울 실현

목표1. 글로벌 중심지 기능 강화

전략	시책
1-1. 국제업무 중심지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심, 용산, 영등포, 강남의 글로벌 기능 강화 • 상암, 마곡을 미래산업 성장 거점으로 특화 육성
1-2.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산과 3핵 간 급행철도망 구축 •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과의 연계 강화
1-3.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과 배후도시를 연계하는 광역거점 육성 • 서울 대도시권의 산업연계성 강화

목표2.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기반 확충

전략	시책
2-1.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기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식서비스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• 차세대 스마트 기술 산업의 적극 육성 • 창조산업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
2-2. 서울경제의 중소기업 기반 구축과 구조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•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 고도화
2-3. 산업집적지역의 혁신적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업별 성장거점의 조성 and 권역별 동반성장 촉진 • 준공업지역 산업 활성화 종합관리방안 마련

목표3.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

전략	시책
3-1.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기반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과 주변 도시를 통합한 광역교통망 구축 •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 구축 • 수도권 광역인프라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
3-2. 편의성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역 차원에서 기존 철도망의 급행화 •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등 버스서비스 개선 • 대중교통 서비스의 첨단화

■ 매력 있는 역사·문화 서울

-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창의기반 조성, 지역별·계층별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, 주변과 조화된 경관관리 및 디자인을 유도해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

목표4.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

전략	시책
4-1. 서울의 역사성 재인식을 위한 기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• 서울성곽 및 종로 이북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• 유무형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DB 구축
4-2. 서울의 역사성·장소성 보전 및 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옥밀집지역의 보전 및 지원사업 지속 추진 • 옛길, 물길 등 옛 도시조직의 보전 및 활용 • 지역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보전형 도시정비 추진
4-3.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관광자원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사문화거점 지역의 관광활성화 •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시민체험 프로그램 강화

목표5. 창의 문화도시 기반 강화

전략	시책
5-1. 장소에 기반한 문화 인프라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역별 거점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 개발 • 문화자원 밀집지역 육성을 통한 문화 클러스터 형성 • 특색 있는 문화지구의 확대 지정 및 지원 강화
5-2. 문화예술 창작 기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• 서울 상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•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
5-3. 관광 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 숙박시설 개선 및 확대 • 융복합한 관광상품 확충 • U-Tour 관광종합안내 시스템 구축

목표6. 매력 있는 도시경관·디자인 창출

전략	시책
6-1. 서울의 경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경관계획을 통한 서울의 경관골격 및 경관관리구역 설정 • 건축물 및 주요 개발계획 등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영 • 특정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연계를 통한 경관형성·관리
6-2.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시경관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사산·외사산 주변의 경관특성 보전 및 강화 • 한강변 및 4대 지천변 경관특성 보전 및 개선 • 매력적인 조망점·조망가로 지정 및 관리
6-3.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창의도시 구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계 속의 디자인 창의도시 구현 • 도시 디자인 기초 수준 향상 및 디자인 특화 • 시민 소통 및 참여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강화

■ 함께 사는 행복 서울

- 지역특성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공간적 불균형을 개선하고, 수요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소하며, 생활권 단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 양극화를 최소화

목표7. 지역특성 강화 및 낙후지역 활성화

전략	시책
7-1.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후 지상 철도축의 도시재생 •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내실화 •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신교통수단 도입
7-2.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의 유형별 관리방안 개발 • 지역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정비계획 수립 • 생활권단위의 정비기반시설 설치
7-3. 지역 특성을 살린 활력 있는 공간 창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가능지의 공익적 활용 • 직주근접을 위한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 • 입체복합화를 통한 지상공간의 활용

목표8.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다양화

전략	시책
8-1.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• 자가주택 확대 • 부담가능한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
8-2.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•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•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
8-3. 주택 커뮤니티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령자가 편한 주택서비스 제공 •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• 단독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활성화

목표9. 사회적·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

전략	시책
9-1. 지속가능한 서울형 복지공동체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소득층 자립 지원시스템 강화 • 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도시 기반 구축 •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문화 확산
9-2. 생활권 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사회복지관 확충과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•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•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다양화

■ 친환경 녹색 서울

-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전환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, 녹지 및 수공간을 선진 도시 수준으로 확충·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서울 실현

| 목표10.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

전략	시책
10-1. 에너지 절약형 도시관리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역세권 고밀복합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소 유도 • 녹색교통기반 확충 • 저탄소 도시관리를 위한 친환경 단지개발기준 마련
10-2.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확대 • 폐기물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활성화 • 건물의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화

| 목표11.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공간 확충

전략	시책
11-1. 깨끗한 공기 및 물환경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바람길 확보 및 대기질 관리 강화 • 상하수도 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 •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물순환 촉진
11-2. 녹지 및 수변네트워크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한 그린네트워크 강화 • 생활권별 다양한 문화복합공원 조성 • 한강과 지천을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 구축
11-3.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 강화 • 도시형 재난에 대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

5 권역별 구상

■ 권역별 구상의 역할과 기능

- 관련 하위계획의 지침 제시
 - 5개 권역별 지역상과 주요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권역별 발전계획 또는 자치구 계획의 지침적 역할 제고
-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내용을 구체화
 - 공간구조 구상과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 관련 지침들을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내용을 구체화
- 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간적으로 종합화, 계획내용의 정합성 점검
 -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관련 지침들을 권역별로 공간에 투영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계획 내용의 정합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 강화

■ 권역별 구상의 공간적 범위

- 도심권, 동북권, 서북권, 서남권, 동남권의 5개 대생활권



■ 도심권

1. 지역상 : “역사도시의 품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”

2. 계획과제

-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심의 기능과 위상이 저하됨.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을 통해 도심과 용산을 연계한 세계적인 국제업무 중심지로 도약해야 함.
-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. 역사문화자원의 종합적인 복원 및 활용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품격을 고양해야 함.
- 도심의 환경과 산업이 노후화됨. 노후산업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도심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·보전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함.

3. 발전방향

○ 중심지 육성

- 도심은 행정중추기관 및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행정과 역사문화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며, 용산은 서울의 미래지향적인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하도록 함. 또한 이들 두 지역을 특성화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연계를 도모함.
- 광화문과 시청, 서울역, 그리고 용산을 연결하여 한강까지 이어지는 가로외의 정비와 함께 이 주변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국가상징축으로 조성함.

○ 역사문화 자원 활용

- 역사문화자원의 개별적 복원사업을 지양하고 이들 사업을 상호 연계한 통합적 복원을 도모하며, 4대문 안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함.
- 광화문광장~북촌~종묘의 역사탐방로, 청계천~동대문 디자인플라자, 인사동·정동·대학로, 서울성곽, 고궁, 근대건축물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함.

○ 도심부 관리

- 패션·디자인, 인쇄·출판, 귀금속, 문화콘텐츠 등 도심 내 특화산업 밀집지역은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함.
- 차별화된 관리유형, 도심산업 육성, 역사·문화의 회복, 도심커뮤니티 육성,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.

○ 공원·녹지 확충

- 북한산-종묘-세운상가-남산-용산공원-한강을 연결하는 서울의 남북녹지축 구간은 시민과 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함.

■ 동북권

1. 지역상 : “신 경제중심지 육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족생활환경 구축”

2. 계획과제

- 동북권은 서울 시민 324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나, 일자리는 72만 개에 불과해 고용기반이 취약하여, 다양한 중심지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함.
- 자족기반의 부족으로 장거리 통근통행이 많아 교통혼잡이 심하여, 간선도로 확충, 경전철 건설 등 교통체계 개선이 요구됨.
- 집단적으로 조성된 주거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. 생활권 단위 공공시설 확보, 구릉지 경관보호 등 조화로운 주거지 정비가 필요함.

3. 발전방향

○ 중심지 육성

- 창동·상계지역을 광역연계거점으로 조성하며 동북권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업무중심지로 육성함.
- 청량리와 왕십리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활력을 청과물시장 등 주변지역으로 전파함.
- 공릉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IT, BT, NT를 기반으로 한 NIT 미래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며, 성수지역은 R&D, 제조, 생산을 연계하는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함.

○ 교통체계 향상

-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교통불편 해소, 동북권의 균형발전,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 기반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전철을 지속적으로 도입함.
- 동북권의 교통체계 및 연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선도로 및 연계도로를 정비·신설함.

○ 주거지 관리

- 구릉지에 위치한 단독·다가구·다세대 주택의 경관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.
-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주민참여를 유도함.
- 종량천변 주거지에 대한 경관 관리 및 주거유형 다양화를 추진함.

○ 공원·녹지 확충

- 종량천을 시민들이 체육·공연문화·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, 접근시설을 개선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함.
- 북한산, 도봉산, 수락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 중 산으로의 조망이 양호한 가로를 중심으로 조망축을 설정하고 조망보호계획을 수립함.
- 동북권의 그린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내사산, 외사산과 권역 내 대형 공원을 연결하는 환상 그린웨이를 구축함.

■ 서북권

1. 지역상 : “미디어산업 및 창조문화 육성과 친환경 커뮤니티 구축”

2. 계획과제

- 서북권은 도심권에 인접하여 중심지 형성이 미약함. 상암·수색, 연신내·불광, 신촌, 공덕 등 특성화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함.
- 노후화된 주택비율이 높아 다수의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의 커뮤니티 붕괴가 우려됨. 조화로운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보호가 요구됨.
- 고양, 파주 등 인구 34만명 규모의 개발이 수도권 북부에서 일어남에 따라 우회도로 신설, 기존 도로의 용량확대 등 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함.

3. 발전방향

○ 중심지 육성

- 상암·수색을 미디어시티로 조성하고, 산업지원시설과 연구교육시설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미래형 미디어 산업의 선도도시로 육성함.
- 질병관리본부 부지와 불광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연신내·불광을 서북권 신생활 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함.
- 신촌과 홍대를 중심으로 대학들을 연계하여 창의적인 문화·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함.

○ 교통체계 향상

- 수도권 서북부의 변화에 대처하고 광역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 강화함.
- 서부선, DMC 모노레일 등의 신설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함.

○ 주거지 관리

- 지역 커뮤니티 보호를 위해 지역 밀착형 정비사업 추진 등 주거지를 체계적 관리 및 지원함.
- 집단정비 시 재원확보를 통해 권역 내 불규칙하고 단절된 도로망과 학교, 공원 등의 시설물을 우선 확보함.

○ 공원녹지 확충

- 홍제천, 불광천을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함.
- 진관 근린공원 등 미집행 공원시설, 경의선 지상부 등을 활용하여 생활녹지공간을 확충하고, 외사산-내사산-한강을 연결하는 순환형 녹지축을 조성함.

■ 서남권

1. 지역상 : “첨단산업 거점 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”

2. 계획과제

- 영등포구의 종사자가 지난 10년간 7만 명이 감소하는 등 서남권의 중심기능이 저하됨. 영등포·여의도, 마곡, 대림·가리봉, 사당, 목동 등 중심기능의 강화가 필요함.
-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감소, 용도 혼재 등 준공업 지역을 둘러싼 부작용이 발생함. 첨단업무 유치 및 여가·문화시설 도입 등 준공업지역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됨.
-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송도, 청라 등과의 연계성이 중요해짐. 광역급행철도 확충, 경인선 지하화 등 경인교통축의 강화가 필요함.

3. 발전방향

○ 중심지 육성

- 여의도 지역에 국제금융지구를 조성하고,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을 광역 급행철도망에 연결하여 글로벌 중심기능을 강화함.
- 마곡지역은 정보기술(IT), 바이오기술(BT), 초정밀기술(NT), 녹색기술(GT) 및 융복합산업 등의 미래지식 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함.
- 대림·가리봉, 사당·남현, 신도림 등 수도권 서남부를 연계하는 중심지를 육성함.

○ 준공업지역 관리

- 영등포-신도림-가산-시흥을 연결하는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통해 신경제거점축으로 조성하여 수도권의 산업브레인축으로 육성함.
-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, 기존 도시형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미래 창조산업의 집적을 위한 지원책도 병행함.

○ 교통체계 향상

- 경인축의 교통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, 서울의 주요 중심지와 인천 경제자유구역(및 경기도의 주요 거점들 간의 연결을 강화함.
- 새로이 조성되는 신안산선은 영등포와 여의도역을 지나도록 조성하며, 목동선, 신림선 등의 연장을 통해 지역 간의 대중교통 연계성을 강화함.

○ 주거지역 관리

- 정비사업을 통해 서남권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로와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.

○ 공원·녹지 확충

- 생태하천 조성, 공원 확충 등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함.

■ 동남권

1. 지역상 : “지식서비스업의 글로벌 기능 강화와 기성시까지 성장관리”

2. 계획과제

-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·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업무 및 주거환경이 악화됨. 강남역과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업무기능의 집적이 요구됨.
- 문정지구,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배후지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됨. 우회도로 확충, 대중교통 중심으로의 전환 등 교통망 개선이 필요함.
- 동남권에는 서울시 주택재건축 면적의 38%가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건축의 집단적 도래가 예상됨. 점진적인 재건축 유도를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함.

3. 발전방향

○ 중심지 육성

- 강남역과 삼성역을 중심으로 업무수요를 직접시키며, 강남핵을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의 글로벌 컨벤션 거점으로 육성함.
- 문정·장지 광역연계거점에 강남 핵의 토지공급 한계로 인해 수용하지 못하는 IT기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하여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함.

○ 교통체계 향상

- 권역 내 교통처리를 위해 광역 교통망을 개선함.
- 승용차 중심의 통근패턴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를 건립을 검토함.

○ 주거지 관리

- 노후아파트 재건축예정구역의 정비 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재건축을 추진함.
-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지에 대해서는 녹지총량제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녹지 확보를 통한 녹지축 보전 및 연계를 도모하며, 친환경적 저밀개발을 유도함.

○ 공원·녹지 확충

- 잠실지역을 중심으로 수변 스포츠 어뮤즈먼트 타운을 조성하며,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대치유수지에 테마 체육공원을 조성함.
-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시가화 및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 개설에 의해 단절된 환상 녹지축과 자연생태축 구간을 생태육교와 공원·녹지 조성을 통하여 연결함.

6 계획의 실현화 방안

■ 정책지표 설정 및 연차별 모니터링

- **정책지표의 설정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달성 여부 점검**
 -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설정한 정책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계획의 실현여부 평가
- **기본지표, 정책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연차별 보고서로 발간**
 - 인구, 산업, 토지이용 등 기본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향후계획 대비
 - 정책지표의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목표의 수정 및 보완, 환류(feedback) 수행
 - 연차별 모니터링 보고서의 세부내용을 후속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현성 강화

■ 시민참여 활성화

- **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을 서울의 비전 공감을 위한 공론화의 장으로 승화**
 -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계획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 형성
 - 제한적이고 일회적인 시민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과정 공개, 시민체감도 조사, 공청회 등 다각적이고 상시적인 참여방식 운영

■ 중간단위 공간계획의 수립

- **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중간단계 계획의 보강**
 -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권역·거점·생활권 단위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용을 통해서 계획의 실행력 담보

■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계획간 정합성 강화

- **도시기본계획과 타 법률에 의한 부문별 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 방안 마련**
 - 도시기본계획과 부문별 법정계획 간의 불분명한 위상 관계를 명확히 재정립
 - 타 법에 의한 부문별 공간계획을 최종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조정·조율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활용성 제고 및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·정합성 확보